

혹고 케미컬

- 셀룰로스 섬유 염색 제품의 습마찰 견뢰도 향상 약제 개발

와카야마(和歌山)시에서 섬유 가공제(纖維 加工劑)를 제조 판매하는 혹고 케미컬(北高 chemical)은 “면을 비롯한 셀룰로스 섬유 염색 제품의 습마찰 견뢰도를 1 ~ 1.5급 높일 수 있는 약제와 처방을 개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면 등 셀룰로스 염색물의 마찰 견뢰도에서 습마찰 견뢰도는 건마찰 견뢰도보다도 항상 떨어져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1 ~ 1.5급 높일 수 있는 약제를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하였다. 이 분야의 다른 회사로부터는 “이 개발이 사실이라면 이 분야의 시장을 휩쓸게 될지도 모른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셀룰로스 섬유 염색 제품의 건마찰 견뢰도는 일반적으로 보통의 마찰견뢰도 향상제로도 올라가는데, 습마찰 견뢰도를 올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왔다. 습마찰 견뢰도를 0.5 ~ 1급 높인다는 약제는 이미 시판되고 있었지만, 1급 이상을 공언하는 약제는 아직 없었다. 그런데 혹고 케미컬의 처방으로 가공하면 반응 염료는 물론, 스렌(thren : indanthrene dye), 황화 염료(sulphur dye)로 염색하는 경우에도 1 ~ 1.5급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 처방은 셀룰로스 섬유의 침염용으로 개발된 것으로 새로 개발된 마찰 견뢰도 향상제 ‘TR-1205’와 유연제인 ‘PS-540’을 함께 사용한다. 그리고 “염료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습마찰 견뢰도를 1급 이상이나 향상시키는 약제는 이제까지 없었다.”고 하면서 이 약제의 보급에 자신을 보이고 있다.♣